



사랑의 메아리

국제 ACN 설립

70주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2017년도 제 1호 · 1월 발행



70년 전, 배낭을 메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 베렌프리트 신부님

“타인을 단죄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서방과 동방 교회에 사제들을
보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웃을 도우십시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1-22 참조)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70년 전 마치 정신나간 것처럼 여겨졌던, 전후의 화해에 대한 몰염치한 요구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웁긴이 주: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범국 독일의 전쟁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Werenfried van Straaten) 신부님께서서는 인간의 고난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하느님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스스로를 낮추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가장 선한 영혼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랑은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랑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ACN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랑의

기적 또한 체험했습니다. 올해도 ACN은 이러한 고통과 사랑의 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이때 저희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단지 ‘종의 마음으로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활동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으로서 불완전하지만,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이 저희가 주님의 종으로서 받는 보상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본받아 끝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 한 방울이 기자님께는 그리 작게만 보이시나요?” 성녀님께서서는 기자를 다시 한 번 쳐다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님께서도 물 한 방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시겠어요? 그럼 저와 기자님, 이렇게 두 방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ACN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눈감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ACN의 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전 세계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017년을 맞아 또 다시 70

년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흔일곱 번씩 용서하여야 하고, 일흔일곱 번 자비를 청하고, 일흔일곱 번씩 이기주의의 고삐를 잡고, 일흔일곱 번씩 자신을 내어놓고, 일흔일곱 번씩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또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나의 티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축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빕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까지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성 마더 테레사에게 논쟁을 걸고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께서 이제 70세이십니다. 수녀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요? 수녀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성녀님께서서는 아무런 동요 없이 답하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거대한 강물의 한 방울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비추려고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신부



박해받은 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

작년(2015년) 11월 4일, 교황청 국제가톨릭사목원조기구(ACN)의 한국지부 설립을 계기로 방한하신 교황청 내사원장 피아첸차 추기경님(국제 ACN 재단장) 일행이 저희 성지를 순례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시리아 흠즈 대교구장이신 아르바흐 대주교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성당의 회랑으로 안내하면서 “이곳이 바로 순교자들이 목 잘리고, 강으로 던져진 곳입니다.”라고 설명드렸더니, 아르바흐 대주교님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까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기도로만 함께 했던 시리아 내전과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머리로만 알고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2016년 병인박해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박해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박해 받고 있는’ 다른 지역교회를 위하여 기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2016년 한 해 동안만 평일미사 때에 봉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여진 봉헌금은 ‘박해 받는 교회’의 사목을 돕고 있는 ACN 한국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성지를 찾아 순례하시는 교형자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임신부 정연정 올림 (2016.08.26 절두산 순교성지 홈페이지)

2016년은 병인순교 150주년이었습니다. 서울 절두산 순교성지는 지난해 병인순교 150주년을 맞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평일 미사 봉헌금을 매달 저희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한국지부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전해 주신 성금은 총 3억 4,596만 7,480원으로 중동 지역에서 고통받고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크나큰 도움이자 연대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박해받은 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라는 성지 사목표어를 정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전해 주신 정연정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와 박해받는 이라크와 시리아 교회의 안정을 위해 끝까지 지원해 주신 원종현 주임신부님, 조한건 보좌신부님 그리고 절두산 순교성지 관계자 여러분과 모든 순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해받은 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 성지 사목표어 앞에서 원종현 신부님과 클라우자 지부장



2016년 10월 방한하신 이라크 아르빌 대교구장 바사르 마티 외르다 대주교님, 주일미사 강론 중



(좌측부터)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정연정 신부님, 국제 ACN 지도신부 마르틴 바르타 신부님,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국제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님, 시리아 흠즈대교구장 장아브도 아르바흐 대주교님, 레바논의 알버트 아비 아자르 신부님, 루보미르 신부님, ACN 한국지부장 요하네스 클라우자



2015년 11월, 피아첸차 추기경님과 아르바흐 대주교님 등 ACN 방문단을 따스히 맞이해 주시는 성지 순례객 여러분



석년 행복 가득한 우리 고유의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가까이 들려옵니다.
빛나는 새 아침을 맞기 위하여
밤은 오래도록 어두워야 한다고.



이해인 수녀님,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1 중에서

정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은 더욱 빛나는 새 아침을 맞기 위해 기나긴 밤을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외로운 밤길에 위로가 될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ACN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육간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한국지부장 요하네스 클라우자 올림

2017 정유년 ACN 달력 시리아의 아이들이 그린 시리아의 평화



지난 12월, 한국에 도착했던 시리아 아이들의 그림으로 제작한 2017 정유년 ACN 달력입니다. 탁상에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형 달력으로, 신청은 재고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달력 정보

- 크기** 180 mm × 200 mm
- 매수** 14매 (28페이지)

신청 방법

- 전화** 02-796-6440 또는 6442
- 문자** 010-7475-6440
(성함, 주소 등과 함께 신청 문자를 남겨 주세요.)
- 인터넷** <http://goo.gl/fQPsm5>
(또는 우측 QR코드를 스캔)





“미래의 사제들”

“사제가 없다면 영성체도 없고, 영성체가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자명해 보이는 이 논리를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신학생이 없다면 사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페루는 신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남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인 페루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는 빈민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시골은 전반적인 발전 저하로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마라(Aymara) 인디언족이 모여 사는 안데스 산맥 마을들은 매우 빈곤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가난한 지역에서 많은 사제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추쿠이토(Chucuito) 산악지대에 있는 과달루페의 성모 신학교에서는 신학생 48명이 신학 및 철학을 공부하며 사제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마을로 내려가 교리교육을 하고 병자나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며 청소년 사목활동을 합니다. “저희는 봉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희는 신앙에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려 해요.” 라고 윌베르 수카푸카 하일라(Wilber Sucapuca Jaila) 학사님은 말합니다. 동기 신학생인 벤하민 우양카(Benjamin Huanca) 학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항상 마음속에 하느님을 품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파리 챔비(Richard Pari Chambi) 학사님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쁨에 넘쳐 노래합니다.

사제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신학생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신학생들이 그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ACN은 한 사람당 1년에 180유로(약 23만 원)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신학생들의 생활비로 쓰입니다. ACN은 또한 일 년 동안 공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00유로(약 266만 원)를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식사, 숙소, 의약품, 서적 등을 공급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19세 신학생, 데니스 레르마 파리오(Denys Lerma Parillo)는 말합니다. “물론 물질적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과 미사 중에 저희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름을 처음 들었을 때 데니스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 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넘치는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48명의 청년들을 이곳 추쿠이토 산악지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 이키토스(Iquitos)의 성 아우구스티노 신학교에 9명, 루린(Lurin)의 성 요셉 신학교에 20명을 부르셨습니다. 신학생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거의 같은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신학생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소명에 충실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 순례길에 오른 신학생들



부제 서품을 받은 후 이키토스 교구장님과 사진 촬영



함께 성기를 부르는 페루 루린의 신학생들



깊게 내린 뿌리

사도 바오로 역시 신학생이었습니다. 갈라티아서 1장 17절에 따르면 그분은 선교를 하시기 전에 사막으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와 학업은 신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 과제입니다. 신학생들이 이 소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장비 및 물품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스페인의 마리아와 예수 성심 선교 수도회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문화와 타민족의 생활 방식에 대한 6년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수도자들이 타문화에 대한 지식, 공감, 관용, 외국 관습에 대한 개방성 등을 갖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동시에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카메룬** 수도 야운데(Yaoundé)에 있는 마리아와 예수 성심 선교 수도원의 생활은 규칙적입니다. 5시 자명종이 울리면 일과가 시작되고 22시가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하루에 기도를 네 번 하고 일곱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주요 일과이며 나머지 시간은

운동, 원예, 식사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는 당연히 미사입니다.

르완다 부타레(Butare)에서 수련 수도원이, **카메룬** 야운데에서는 신학교 등이 새로 설립되면서 아프리카 출신 성직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현재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23명의 신학생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될 것이며, 이는 유럽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야운데의 수도원은 130명이 소속된 비교적 작은 수도원으로, 지난해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 늘어나는 데다가 스페인의 금융 위기로 인해 본원의 수입과 후원이 줄면서 수도원 운영에 어려움이 닦쳤습니다. ACN은 신학교에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ACN은 11,500유로(약 1억 5,000만 원)를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지원에 바오로 사도께서 함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다 해도 복음은 영원합니다. 산토스 신부님께서 예비 사제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단 한 푼의 돈도 세 번씩 지출해야 하지요.” 야운데 수도원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알폰스 신부님

작은 실천, 큰 결실

사진 속 이 작은 책자들 안에 얼마나 위대한 사유와 지혜 그리고 감동이 들어 있을까요! **미안마** 타웅지(Taunggyi)의 사제들과 신학생들은 무려 60년 동안 이 작은 기도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아교풀이 남아 있지 않아 책장이 떨어져 나가고 너털너털한 데다가 재고도 충분하지 않지만, 말씀의 가장 진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은 비록 낡았으나 내용은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도문은 영원한 빛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마음을 모아 수집한 새로운 기도문들을 기도서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책자는 또 수십 년간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많은 신학생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달게 해 줄 것입니다. ACN은 형제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새 기도서 인쇄 비용 800유로(약 1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느님의 메신저들

전 세계 사제 10분 중 한 분은 ACN의 지원을 받습니다. ACN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사제들은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출신이며, 지원 현황은 장학금, 건축지원, 종교서적 인쇄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사제 수가 지금보다 감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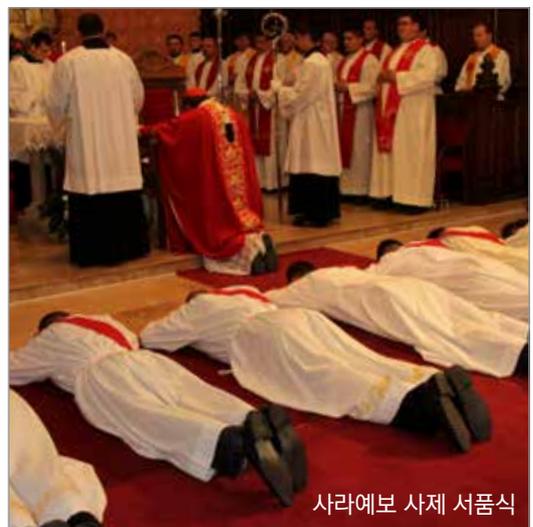
아프리카 **기니공화국**에서 베네딕토 16세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서신을 통해 성전 축성을 축하하시며 신학생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944년 12월,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대장이 부하들에게 제대 후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지요. 하사관은 제게 전쟁이 끝난 후의 새로운 독일에는 사제는 필요 없다며,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전 후 황폐화된 독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사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의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사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제는 미래가 없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제는 공동체의 ‘매니저’가 아닙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메신저’입니다. 사제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심부름꾼입니다.”

켄두마야(Kendoumayah) 교구의 신학생 73명은 교황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으로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얼마 전 첫 번째 부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할 첫 번째 메신저가 파견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켄두마야 교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의 메신저들을 배출할 것입니다. 이곳 신학교는 숙소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신학생들이 임시로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속히 신학교 시설을 완성하기 위해 ACN은 건설비 3만 유로(약 3,8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메신저들은 세계 곳곳에서 탄생합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손길이 세상 곳곳에 닿습니다. **파푸아뉴기니** 17명, **에라도르** 40명, **콜롬비아** 34명, **마다가르카르** 105명, **우크라이나** 49명 등 수많은 신학생들이 ACN의 지원을 받습니다. 미래의 사제들은 세상을 새롭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 선교의 참다운 성공은 은총의 선물’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힘입어 성실히 교육받고 자신들의 소명에 응답할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신학생들은 성서 없이는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Sarajevo)의 신학생들은 “예루살렘 성서”가 필요합니다. 사라예보 신학교의 수석 사제께서는 예루살렘 성서를 신학생들을 위한 가장 알맞은 성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서에는 신학생들의 미래의 사목활동에 필요한 주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극심한 전쟁과 인종 청소의 비극적 역사로 얼룩진 나라입니다. 이곳은 신학적, 윤리적 관점을 토대로 폭력과 세뇌의 역사를 종식하고 역사적, 인종적, 민족적으로 복잡한 종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이미 긍정하면서도 가톨릭 정신을 잃지 않는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를 발행하고 배포하기 위해 ACN은 2만 유로(약 2,5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성서와 가톨릭 서적들은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사라예보 사제 서품식



평화를 기원하며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다

자동차 대신 탱크, 햇살 대신 폭격, 포근한 집 대신 잔해, 초원 대신 황무지, 고향 대신 타지,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많은 아이들은 전쟁 말고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태양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태양은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태양은 이제 그리움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알레포, 홈스, 라타키아 지역의 일상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탱크 쇠바퀴의 굉음과 천둥 같은 총소리가 그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평화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그곳의 사제, 수녀, 주교님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그들과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ACN과 연대하여 시리아 전국 2,000개 학교에서 100만 명의 아이들이 시리아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또한, 주교님들께서 유럽을 방문하시어 유럽연합의 정치 책임자들에게 아이들의 그림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메시지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유럽 정치인들이 아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평화는 결국 정의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7-18) 우리 역시 이 아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의 손길과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일상에 한 줌의 햇볕을 전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이들이 그린 “시리아의 평화”

시리아 아이들의 바람이 담긴 소중한 그림들이 ACN 한국지부에도 일부 도착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전시 관람 방법을 통해 시리아 아이들의 그림들을 만나보세요.

온라인 전시회 관람 방법

인터넷 www.churchinneed.or.kr/peace-for-syria
또는 <http://goo.gl/17RmkP>

QR코드



(네이버 앱 또는 다음 앱으로 스캔 가능합니다.)





진, 선, 미는 결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당 신자들은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달았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신자들은 성당 보수 공사를 막 끝마쳤습니다. 프란시스코 헤지날두(Francisco Reginaldo) 신부님께서서는 '비길 데 없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평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모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지날두 신부님은 고백성사와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늘었고 감실 앞에서 성체조배하기 위해 성당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와 혼인성사 신청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ACN과의 친근한 관계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당 신자 몇몇은 ACN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헤지날두 신부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희 신자들은 물질적으로 많은 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이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손길을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Johannes Freiherr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ACN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 교황 비오 12세께서 독일 난민들에 대한 원조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몽코르니옹 수도원에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수도원 원장님께서서는 1947년 12월, 수도원 소식지에 "땅 위의 평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기사를 실어 유명해진 벨기에 통에를로(Tongerlo) 수도원의 베렌프리트 판 슈르타텐 신부님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이 젊은 사제께서 이 베품의 기적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후 교황 요한 23세께서 베렌프리트 신부님께 남미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시며 ACN의 일치와 도움의 손길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ACN에게 요청하셨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마침내 5년 전에 ACN을 교황청 재단으로 승격시키셨습니다. ACN은 오늘날 전 세계 23개국에 지부를 두고, 140여 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신비로 가득합니다. 성령께서는 임하고자 하는 곳에 임하시므로, 후원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ACN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중등을 돕기 위해 케이크를 구웠어요

저희 신부님께서 교리교육 시간에 중등 지역 난민들을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용돈을 아껴 동전을 모았고, 학부모와 교리 교사들은 케익을 구워 미사 후에 판매했어요. 수익금과 기부금이 176.33 달러(한화 약 21만 원) 모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 마음을 전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전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옳은 결정

저는 <사랑의 메아리>를 받아볼 때마다 제가 ACN을 후원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ACN이 사랑과 평화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내는 후원금을 계속해서 좋은 목적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에서

부제 서품을 받았습니

저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는 2016년 8월, 우간다 토로로(Tororo) 교구에서 부제 서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저와 아프리카 교회에 베풀어 주신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간다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https://www.instagram.com/acn_korea)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교황청
재단

